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cdang44b@hanmail.net)

낙동강 (洛東江)

- 변진(弁辰), 가야와 신라, 경상 좌·우도를 나눈 역사의 강

1. 「가락(洛)의 동쪽(東)」 뜻하는 남한에서 가장 긴 강

가는 이도 이와 같을까? (서자여사부 逝者如斯夫) 주야로 흘러서 쉬는 일이 없구나. (불사주야 不舍晝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천상지탄(川上之嘆)」이다. 공자의 이 말은 강물의 흐름과 인간의 유전(流轉),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사의 덧없음을 말한 것이다. 강물에서 브라만을 깨달은 혜세의 신타타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강물의 흐름은 인류 역사의 영고성쇠(榮枯盛衰)와 직결된다. 강이 없으면 나일강변의 이집트문명도,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도, 갠지스강변의 인도문명도, 가까운 중국의 황하문명도,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울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낙동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서사시가 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삼한 이전부터, 그리고 가야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있기에 구비마다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이야기가 묻어 나오

는 강인 것이다.

경상도의 낙동강(洛東江)은 근원이 태백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한 도(道)의 중간을 그었으며, …(중략)…경상도 한도는 모두 한 수구(水口)를 이루니, 낙동강은 상주(尙州) 동쪽을 말함이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는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통 털어 낙동강이라 부르며, 또 가야진(伽倻津)이라고도 한다. 강 동쪽은 좌도(左道)가 되고, 강 서쪽은 우도(右道)가 된다. 고려 때에는 이 강과 호남의 섬진강, 영산강 두 강을 배류(背流)한 삼대강(三大江)이라 하였다.¹⁾

이 기록에 나오는 대로 '낙동(洛東)'이라는 이름은 상주의 동쪽을 말하는데, 상주의 함창이 옛 고령가야(古寧伽倻)의 땅이므로 "가락(伽洛)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함창읍 증촌리에는 옛 고령가야국의 왕릉이 있고, 또 인근 오사리에도 왕비의 능이 있어서 이 일대가 가락국의 땅이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흔히 "칠백리 낙동강"이라고 말하지만, 강 길이가 5백km가



넘으니 1천2백리가 넘는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요,²⁾ 그 유역 면적만 해도 남한 땅 4분지 1, 그리고 영남지방의 거의 전역을 적시는 넓은 강이 바로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역사적으로 변한과 진한, 가야와 신라를 나누었고, 경상도를 좌 우도로 나누었던 역사의 강이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를 사이에 두고 서쪽과 동쪽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도서로 대조를 이루었다.

2.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하고 가야와 신라를 나누며 흘렀다.

가령 낙동강의 동쪽에서 나온 토기를 경주 토기 또는 신라 토기라 불렀고, 그 서쪽 땅에서 나오는 토기를 가야 토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은 대체로 변한에 속한 부족국가 12국, 동쪽은 진한에 속한 부족국가 12국이 일어났고, 이 나라들이 뒷날 다시 가야 여섯 나라와 신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³⁾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의⁴⁾ 머리글자를 딴 「경상도(慶

尙道)」라는 이름의 '경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06년(고려 예종 1년)이며, 이것이 「경상도」로 굳어진 것은 1314년(충숙왕 1년)이었고, 1407년(태종 7년)에는 군사상의 이유로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좌우도로 나누기도 하였던 것이다.⁵⁾

자단향 코를 예는 봉화 태백산
절묘한 목단봉에 신비한 황지(黃池)
그 중에 기어할 손 공연(孔淵) '뿔은 내'
숫쳐서 부룬 것이 낙동강 근원.

이것은 육당 최남선의 <조선 유람가> 중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황지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못으로서 낙동강의 원류가 되며, 황지의 물은 태백시 동점의 공연(孔淵), 즉

- 1) 이금익, 「연려실기술」(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1, 1988) 189-190쪽, 여기서 배류 3대강이라 한 것은 강물이 왕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 2) 낙동강의 정확한 길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 발원지나 하류의 끝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과 계측방법에 의하여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 3)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경성북도, 낙동강 231-235쪽)
- 4) 상주는 원래 부족국가 시대 사벌국이었고, 신라에 점령되어 사벌주가 되었다가 신라의 맨 위쪽이 되므로 상주(上州)가 되었고, 다시 경덕왕 때 상주(上)→尙로 고쳤다.
- 5) 동쪽은 경상좌도, 서쪽은 경상우도라 하였는데, 여기서 좌우의 구분은 서울궁궐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이다.

구무소(구명소)를 지나 낙동강으로 흐르게 된다. 낙동강 발원지가 되는 황지는 조선 왕조 때부터 성역으로 모시던 곳이다. 가뭄이 들면 관원이 내려와 기우제를 지내던 곳ियो, 또 민간에서 이 물 색깔로 수색점(水色占)을 치는데, 물 색깔이 쪽빛에 희뿌연 우유 빛이 섞이면 풍년이 들고, 붉은 색이 섞이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⁶⁾ 한편 황지 못의 물이 끓기면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선조실록>에는 1571년 낙동강 상류의 물줄기가 끊겼다는 경상감사의 장계가 있었고,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을 바로 이 「낙동강 상류의 절류」가 예고한 것으로 보았다.⁷⁾

한 줄기 낙동강 물에 조국의 운명을 걸어 놓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느냐, 노예와 사막의 구렁에 빠지느냐?
피가 끓고 살이 튀는 화랑정신의 아름다운 전통은 이 지역의 전투에서 생생하게 아로 새겼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에 있는 전적비문에 새겨진 글의 일부이다. 낙동강은 우리 현대사를 피로 얼룩지게 한 6.25전쟁을 가장 격렬하게 치러낸 강이기도 하다. 남한 땅을 공산군으로부터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 - 워커라인이었으며, 우리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과 그 언저리에서 한 달 가까이 격전을 치르면서 낙동강을 붉은 피로 물들였던 것이다. 그 싸움에서 공산군은 지리멸렬하였고, 다시 반격하여 서울을 비롯한 국토를 수복하게 되었으니, 이 강변에서의 한 판 싸움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살리고 조국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3. 강을 살리는 것은 대자연법이며, 생명의 법 따르는 것

영남의 큰물은 낙동강인데 크고 작은 하천이 일체히 모여들어 물한방울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 인삼이 한데 뭉쳐어 부름이 있으면 반드시 화답하고, 일을 당하면 힘을 합하는 이치이다. ... 풍기가 모여있고, 흠어지지 않았으니 옛날 풍속이 아직 남아있고, 명한이 배출되어 우리나라 인재의 부고(富壽)가 되었다.

-이의 《성호사설》 중에서 (원문생략)

성호의 이 글은 낙동강의 인문 지리적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본다. 신라문화의 요람인 낙동강에 대하여 옛 백제의 강은 어떤가.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등이 저마다 물을 모아 각기 제 갈 곳으로 흘러 들어가니 못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아 흐르는 낙동강과 비교될 수가 없다. 말하자면 강물의 결집 - 인물의 결집으로서 낙동강은 곧 영남 지방을 하나로 묶는 결속(結束)의 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낙동강의 오염문제를 이야기할 때다.

내 사랑의 강!
낙동강아!
칠 백리 굽이굽이 흐르는 내 품속에서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함께
길이길이 살 약속을
오목 조목 산비탈에 깃발처럼 세웠다.
...(후략)

김용호 시인이 쓴 장시 <낙동강>의 일부이다.

전국의 강물이 중병을 앓고 있지만 낙동강도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강이다. 이 강줄기에 사는 약 1천 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젖줄이자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낙동강이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척추가 굽어진 물고기, 강으로 몰래 스퍼드는 공장폐수, 축산폐수와 농약 중금속들, 떼죽음 당하는 채첩, 옛말이 되어가는 을숙도의 철새군락지, 자취를 감춘 은어와 계와 새우와 조개... 등등 지역에 따라서 각종 오염현상이 나타나면서 낙동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문명을 꽃피워 준 강물에다가 문명의 뒤처리(도시화,

6) 황지 못의 정자설화(인삼한 장자의 집터가 연못으로 변하는 설화함.

7) 뿌리깊은 나무, 앞의 책, 231-235쪽

산업화, 개발화의 쓰레기)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직도 낙동강을 「낙동강」이라고 내뱉는 강변 피해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물은 돌고 돌며 바다로 모여든다. 물은 수증기로, 안개로, 얼음으로, 눈으로, 비로, 우박으로, 구름으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치유한다. 그리고 그 순환의 모체는 바다이다. 그리하여 무수한 물방울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 수많은 강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 드려

순환하되, 어떤 '개(個)'도 포용하는 완벽한 대 원융(圓融) - 대자연법을 이룬다. 인간도 역시 자연의 예외가 아니다. 강을 살림으로써 대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하면서도 가장 지순한 「생명의 법」이다.

강은 인류의 문화와 생명의 원천.

물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듯이, 낙동강 물에는 영남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